

많은 악덕과 적은 미덕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에는 이점이 있지만 사각지대도 있다. 명료함이 스스로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순간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도착한다. 기다릴 줄만 알면 된다. 그것은 이탈리아 사람의 재능은 아니다.

사전 기획 없음. 계획 없음. 그것은 사려 깊어 보이라고 두둑이 보수를 받는 이들에게 남겨진 일이고, 진짜 데이터는 본능과 직관에 묶여 있다. 두 개의 절대적 가치. 우리가 유능한 여자들의 아들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은 채로. 그것을 결코 잊지 마라.

미국인들은 그것을 work in progress라고 부르고, 그 말을 아주 편하게 한다. 우리 이탈리아 사람들에게는 경영의 시야가 없다. 이천 년이 지나도 우리는 여전히 자기 자리를 방어하고 있다. 누가 무엇을 가졌었는지를 두고 다투고, 정작 누가 진짜로 무엇을 가졌었는지는 결코 다투지 않는다. 그리고 언제나 고대 로마인을 불러낸다.

수도교와 변소를 잘 지은 사람들. 복종과 지배와 찬탈과 차별의 대가들. 끝없는 여흥과 난교에 싸인 채. 많은 악덕과 적은 미덕. 이천 년 전에 말 하나와 책 한 권을 들고 온 그 동료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 그는 Bezos와 Amazon의 도착을 알리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남의 살가죽 위에서 사업이 어떻게 세워지고 소유되는지를 보여 주러 왔다.

이천 년이 지난 지금도 고해소는 같은 방에 있다. 죄도 같다. 보속만 다시 협상되었다.

모든 것을 잃고 공중변소만 남은 민족, 그리고 급하게 기도하듯 통치하는 정부. 눈은 감고. 말은 외워 둔 대로. 마음은 이미 문밖에.

우리는 워싱턴에 보호를 요청하고 그것을 주권이라 부른다. 브뤼셀에 돈을 요청하고 그것을 존엄이라 부른다. 그러고는 한 손을 여전히 남의 주머니에 넣은 채 영성체를 하러 간다.

교회는 적어도 자기에게 교리가 있다고 인정한다. 우리 정치는 같은 교리를 가지고 그것을 상식이라 부른다. 둘 다 확인하지 말고 믿으라고 요구한다. 둘 중 하나만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염치가 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수백 년 동안 제단 앞에 서 있었으면서도 결코 배우지 못한 교훈이 하나 있다. 겉으로 보이는 복종이야말로 숨겨진 진짜 정복이다. 그것은 주머니가 빈 사람만 읽어 낼 수 있다.

한쪽에서 자본이 쌓이는 동안, 다른 쪽에서는 누군가가 자기가 담을 수 있는 만큼만 정확히 쥐고 있다. 카지노 테이블을 굴리는 딜러처럼. 하우스는 결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하우스는 기다린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앞서 확인한 그 한 가지다.

이탈리아. 20일짜리 휴가로 와서 잘 먹고 곧장 떠나는 나라. 내가 권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이다.

Ferdinando